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리디아 순교자

사순절 제5주일 / 성모 희보 축일

제1조 / 조과복음 : 루가 1, 39-49, 56

조과 : '찬양되시는 주여...' 는 부르지 않음.

- 시편 51 봉독 후 '영광이 성부와...' 보통 주일 것
- 제8에오티논 엑사쁘스떨라리아 / 정교회 성가집 참조
- 성모 희보 엑사쁘스떨라리아 / 날짜별 성가집 100
- 성모 희보 애니 / 날짜별 성가집 101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 제2응송 '우리를 위해 육화하신' / 167, B 165
- 성모 희보 축일 찬양송 / 167, B 166
- 성모 희보 축일 입당송 / 167, B 167
- 제1조 부활 찬양송 / 81, A 211
- 성모 희보 축일 찬양송 / 167, B 166
- 사순절 시기송 / 223, B 276
- 사도경 : 히브리 2, 11-18 / 167, 봉독서 509
- 복음경 : 루가 1, 24-38 / 168, B 168
- 성모 희보 축일 성모송 / 169, B 170
- 영성체송 / 169, B 171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주는 구원의 말씀 거룩한 가족

3월 27일에 우리 교회에서는 2세기에 살았던 싱글리티코스의 성 필리토스와 그의 아내 성 리디아와 이들의 두 아들 성 테오프레피오스, 성 마케도니아스 순교자 가족을 기념합니다.

이 가족의 사례는 사도 바울로와 사도 실라가 마케도니아의 필립비 감옥에 갇혔을 때 드렸던 기도를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때는 한 밤중이었다. 바울로와 실라는 기도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있었고...”(사도행전 16:25)라는 구절을 읽습니

다. 이렇듯 이 순교자 가족도 박해 때 우상 숭배자들에 의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느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렸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기도하는 모습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 가족의 중요한 특징인 가족 기도를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족 안에서 겪고 있는 위기의 특징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처럼’ 가족 기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생활의 여러 상황에 따라 부모님이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처럼 더 교육적이고, 거룩한 것은 없습니다.

당신은 하느님과 당신의 이웃을 어떻게 봅니까?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라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은 주로 구약을 인용하면서 하느님은 엄격한 심판자시고, 인정사정 보아 주지 않는 형벌자시고, 사람과 세상의 문제로부터 멀리 계시는 분이시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구약을 잘 살펴보면 하느님의 다른 모습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언자 엘리야가 하느님을 만나러 호렙 산으로 간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엘리야가 산에 도착했을 때 크고 강한 바람 한 줄기가 일어 산을 뒤흔들고 바위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 다. 바람이 지나간 다음에 지진이 일어났습니 다. 그러나 주께서는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 다. 지진 다음에 불이 일어났습니 다. 그러나 주께서는 불길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 다. 불길이 지나간 다음 조용하고 어린 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열왕기상 19:11~12) 하느님은 바로 그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느님을 엄한 심판자로만 알고 있던 것을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바꾸어 주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신 위엄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한 때는 여러 종교에서 신의 제단에 사람을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신이,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셨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심을 통해, 우리는 이제 하느님뿐만 아니라 하느님께서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모든 사람,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구원을 위해 저 높은 곳에서 내려오셔서 사람의 모습을 취하셨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기심으로 자신만의 ‘왕좌’에서 내려오

지 않고 자신만 편하게 지내면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까닭에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4세기)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많은 사람을 창조하지 않으시고 아담 한 사람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자신과 하나인 존재로 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보는 것처럼 이웃을 대하라고 배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 자신에게 하듯 “가장 보잘 것 없는 형제”(마태오 25:40)에게도 사랑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빠스 도로테오스(6세기)가 언급했듯이 “이웃과 가까워지는 것이 곧 하느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른 모습”(마르코 16:12)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리스도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하느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된 형제 자매들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모습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위대한 진리와 위대한 교부들이 전해주는 지혜가 얼마나 단순하고 심오합니까! 아빠스 아폴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형제를 보았느냐? 너의 영원하신 분, 너의 하느님을 본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러하였듯이.”

성 파코미오스 수도자에 따르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보이는 사람의 얼굴에서 보는 것”이야말로 하느님에 대한 가장 위대한 관상(觀想)입니다. 더 나아가 교부들은 우리 마음이 “모든 피조물에 대해, 모든 사람과 새

3면으로 계속

많은 일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트리폰 수도원장

날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사건과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런 불안과 걱정들을 막고 싶다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보살펴주고 계시며, 모든 일이 마침내 좋게 마무리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온갖 일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걱정이나 근심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걱정과 근심은 단지 우리의 시선을 엉뚱하고 잘못된 곳으로 쏠리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믿으면서 우리의 주위와 관심을 그리스도에게 둔다면,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을 평화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재난과 불운조차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느님께서 쓰시는 도구라는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낙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는 ‘많은 일에 다 마음을 쓰며 걱정’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도리어 언제나 정말로 필요한 것 한 가지에만 정신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루가 10:41-42 참조)

▶ 아타나시아

☞ 2면에서 계속

들과 동물과 심지어 악마에 대해서도” 연민으로 “뜨거워져야”(루가 24:32)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시리아의 성 이삭, 7세기)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신비는 우리가 하느님과 우리 이웃을 바라보는 시각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과 우리 이웃을 보는 이러한 시각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더욱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존엄을 유린당하고 악에 이용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 테러, 온갖 형태의 폭력, 사람에 의한 사람의 착취와 이용, 언어 폭력, 아동 성폭행, 마약, 현대판 노예 등 이 시대는 가난한

사람들, 힘 없는 사람들의 희생을 끊임없이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이기심, 자기중심주의에서 비롯된 것이고, 사람 사이의 친교조차도 지극히 세속적이고 이기적이어서 마치 지옥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끔찍한 현실 속에서, 오직 참사랑의 하느님, 완전한 하느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해방시켜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이웃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볼 수 있고, 우리 시대에 만연해 있는 윤리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한국정교회 대주교

부산 성모 희보 성당의 축일을 축하합니다

오늘 3월 25일, 축일을 맞이하는 부산 성모 희보 성당에 주님의 축복과 성모님의 충만한 은혜로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성 대주간 및 부활절 예식 시간표

- .4월 1일 성지 주일 오전 8:45 ▷ 조과, 성 요한 크리스스토모스 성찬예배 / 오후 2:00 ▷ 신랑의 예식
- .4월 2일 성 대월요일 오후 6:00 ▷ 신랑의 예식
- .4월 3일 성 대화요일 오전 9:00 ▷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 오후 6:00 ▷ 신랑의 예식
- .4월 4일 성 대수요일 오전 9:00 ▷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 오후 7:00 ▷ 성유성사
- .4월 5일 성 대목요일 오전 9:00 ▷ 대만과 및 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
오후 6:30 ▷ 주님의 거룩한 고난 예식(12복음 봉독)
- .4월 6일 성 대금요일 오전 9:00 ▷ 대시과(1, 3, 6시과)
오후 3:00 ▷ 9시과, 만과, 주님을 십자가에서 내리는 예식
오후 7:00 ▷ 에페타피오스 예식
- .4월 7일 성 대토요일 오전 9:00 ▷ 대만과 및 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
오후 11:30 ▷ 부활절 예식, 성 요한 크리스스토모스 성찬예배
- .4월 8일 부활 주일 오전 11:00 ▷ 사랑의 대만과 / 오후 12:30 ▷ 사랑의 오찬

●자세한 예배 시간은 각 성당에 문의 바랍니다.

소 식

대교구

■ 『영성 예술』 출판 기념회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대주교께서 집필하신 『영성 예술』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과 함께 그 동안 정교회 출판사에서 출간한 성화에 관련된 책들, 『이콘 신학』, 『이콘을 아십니까?』를 함께 소개하는 출판 기념회를 3월 27일 화요일 오후 6시 30분에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에서 가질 것입니다. 함께 참여해주셔서 출판 기념회를 축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부활절 꽃, 달걀 봉헌 신청

예년과 같이 부활절 달걀과 에피타피오스 꽃 장식 봉헌을 신청 받습니다. 부활절 달걀은 성

당에 기증하는 부분과 신자분이 가져가는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성당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달걀 가격도 사무실로 문의해주십시오.)

■ 성당 대청소

오는 4월 1일 성지 주일 성찬예배 후 부활절 준비 대청소가 있겠습니다. 모든 신자분들의 협조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시간 안내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에서 이번 주 중에 드리는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는 수요일 오후 5시, 금요일 오후 5시에 거행되었습니다. 신자분들께서는 참고하셔서 착오 없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제6주간 예식

- . 화·수·목요일 오후 5시 ▷ 석후대과
- . 3월 28일(수), 30일(금) ▷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 . 3월 31일(토) 라자로의 부활 토요일

오전 9시 ▷ 축일 조과, 성찬예배

(자세한 예배 시간은 각 지역 성당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처 : 한국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 (02) 362-6371 / Fax (02) 365-2698 / www.orthodoxkorea.org